

익산시, 빅데이터로 시민 삶 읽는다

빅데이터 분석사업 착수... 16개 주요 분석과제, 현장 밀착형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익산시가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 강화를 위해 '2025년 빅데이터 분석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올해 통신사와 카드사, 은행, 신용정보기관 등 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시정 전반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수립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주요 분석 과제별 추진 방향을 공유했으며, 향후 정책 활용과 행정 개선을 위한 정밀 분석에 돌입했다.

앞서 시는 전 부서를 대상, 수요 조사를 실시해 11개 부서의 16개 핵심 분석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분석 대상은 인구·관광·교통·소비·복지·주거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지역별·시간대별 생활인구 분포를 기반으로 해충 기피제 분사기 설치 최적지를 도출하고, 주요 관광지와 축제 방문객의 연령·지역·체류시간·소비 성향 분석을 통해 관광 마케팅 전략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익산사랑상품권(다이로움) 이용 실태와 소비계층별 효과 분석, 지역 음식점소 소비패턴과 외지인 선호 음식 분석을 통해 음식관광 콘텐츠 육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버스노선별 승차차량 분석을 통한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불법 주정차 단속 효율성 개선 △주차장 수요공급 현황 파악 등 다양한 과제들이 추진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과 고독사 위험군 분류 △노인복지서비스 수요 예측 △청년일자리 유치와 연계한 디지털기업 입지 분석 등 실질적인 정책 도출을 위한 데이터 기반 분석도 진행된다.

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통계 분석을 넘어, 문제 해결 중심의 실행 가능한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여름철 위생해충 방역 본격 시동

방역 교육·발대식... 읍면동 담당자·근로자 등 60명 참여
모기발생 감시장치 활용한 방역기동반... 11월까지 운영

익산시가 여름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방역에 본격 돌입한다.

익산시는 24일 보건소에서 '위생해충 방역 교육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보건소 방역기동반을 비롯해 29개 읍면동의 방역 담당자·근로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방역 활동에 앞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역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위생해충의 특성에 따른 방제 방법과 올바른 살충제·방역장비 사용법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보건소 방역기동반 2개 반을 편성해 유충 구제 활동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읍면동의 방역 활동을 위해 장비와 약품 배부도 완료했다.

29개 읍면동도 하계방역반을 구성해 10월까지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 소독을 진행한다.

보건소 방역기동반은 오는 11월까지



취약지역과 위생해충 주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모기발생 감시장치를 활용해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모기발생 감시장치는 모기를 채집해 개체수를 분석하는 장치로, 보건소는 실시간 모기 밀집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장치는 △익산종합운동장 △남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송리문화예술회관 △보건소 △모현공원 △푸른솔커뮤니티 △서동시장 △익산시민공원 △중앙체육공원 등 9곳에 설치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국립군산대학교, 해상풍력 전문기업과 맞손

명일책임해양·변영중공업·휴먼컴퍼지트·삼일씨엔에스·티에스윈드
풍력발전 분야 기술개발·전문 인력양성·지역발전 위한 협력 강화

국립군산대학교는 25일 해상풍력 관련 전문기업체 명일책임해양(주), (주)변영중공업, (주)휴먼컴퍼지트, (주)삼일씨엔에스, (주)티에스윈드와 '새만금 글로벌 해상풍력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군산대학교가 추진하는 '새만금 ECO-UP' 글로벌 대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상풍력 분야 산학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과 지역 공헌을 동시에 실현하는 글로벌 대학의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협력 △국가연구소사업(NRL2.0)에 대한 상호협력 △말도 해상풍력 실증단지 활용 협력 △풍력발전을 위한 학생 현장실습 등 전문 인력양성 및 취업 연계 등이다.

특히 명일책임해양(주)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향후 10년간 R&D사업에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했으며, (주)변영중공업은 국립군산대학교에서 기술이전한 '펜타포드 석션버켓' 지 구조물 및 설치방법'과 '해상풍력 발전기용 지지구조물' 기술의 상용화

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군산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해상풍력 분야 산학협력은 새만금 지역의 해상풍력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고, 대학이 추진중인 말도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국내 최고의 해상풍력 R&D 허브로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립군산대는 이번 MOU를 바탕으로 '기업 참여형 해상풍력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말도 해상풍력 실증단지 활용 현장 실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과 해상풍력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정책 반올림 5기' 발대식 개최

저연차 공무원의 신선한 관점 바탕으로 조직문화 혁신 활동 전개

군산시가 저 연차 공무원들의 정책 연구모임인 '정책 반올림 5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23일 청년들 3층 청년강당에서 출범한 '정책 반올림 5기'는 앞으로 자유로운 의견과 아이디어 등을 제안해 시정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책 반올림'은 임용 5년 차 이하 8~9급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실무 현장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참신한 정책을 제안하고, 공직 내부의 소통과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운영되는 군산시의 시정 혁신 모임이다.

지난해 활동한 정책 반올림 4기는 △시 캐릭터 활용 방안 다양화 △새만금 화훼단지 조성 △반려견 테마파크 구성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

사업 개선책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직원 간 칭찬 사연을 접수 받아 간식 꾸러미를 전달하는 동료 격려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올해 5기는 총 18명의 직원이 참여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정책 발굴과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병행하며, 두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연말 정책 경연대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 의지를 북돋을 계획이다.

권은경 기획예산과장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유연한 시각과 실행력으로 행정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수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 산업단지 고용지원 강화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효율적 일자리 연계·고용 서비스 제공의 장 마련

군산시는 24일 군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군산 산업단지 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한국커리어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노동부 군산지청, 군산시를 포함해 14개 기업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노동부 군산지청 △군산시 △(사)한국커리어가 추진하는 고용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과 기업 의견 수렴 활성화 방안 등 앞으로의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특히, 자유토론 시간에 기업이 필요

로 하는 일자리 정책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기업들을 위해 지원제도를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오갔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기업 의견의 인력 수요 및 개선 의견을 받아들이 앞으로의 일자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반영·검토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 가정의 달 맞아
아동권리 캠페인 전개

익산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아동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 시청 1층 로비에서 아동권리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일상 속에서 아동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의 중심에는 시민들의 눈길을 끄는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 전시가 있다. 이번 전시는 아이들이 실제로 들은 상처가 되는 말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어른들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어떤 언어적 상처가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전시장에는 아동권리를 쉽게 설명한 안내문과 전시 내용을 담은 책자도 함께 비치돼, 시민들이 전시를 통해 자연스럽게 아동 존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관내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100% 도입

군산시가 관내 모든 구급 차량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100% 도입했다고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구급차나 소방차 출동 시, 긴급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를 자동 제어해 녹색신호를 부여하여 출동 경로를 신속히 확보해주는 첨단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말한다.
실제 시스템 도입 이후, 긴급차량의 출동 시간이 평균 30~40%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와 긴급차량 출동시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2023년 11월, 10대의 구급차량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군산소방서 관할 구급 차량 전체에 보급을 완료하였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당을 계속 이어 지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함도문화전자대전